2009건설의날 행사에서금탑산업훈장수상

박 덕 흠 원화건설(주) 대표이사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 다할 터"

"4만여전문건설업체의아픈곳을모두어루만져주지못했는데도그들을대표하여이런큰상을받게된것이영광스럽기보다는오히려미안하고부끄러울따름입니다. 하지만앞으로 더욱 증진하라는채찍으로알고건설산업의질적성장을위해더욱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난달18일건설의날기념식에서건설분야최고포상인금탑산업훈장을받은박덕흠원화건설대표이사는32년외길건설인생을 걷고 있는 '건설통'이다. 1977년 건설과 인연을 맺은 후 서울시 토목 공무원을 거쳐 현재의 원화건설을 비롯해 5개의 건설 관련 기업군을 일구면서 건설 기술 인력 양성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에남다른노력을몸소실천하고있다.

박덕흠대표는지난24년간경영합리화와투명경영을통해원화건설을최고의경쟁력을갖춘건설업체로성장·발전시켰다. 또한, 건설 기술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고객 제일주의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남다른 도전정신과 성실함, 우수한건설 기술 인력 확보를통하여국내 토목부문을리드하는전문건설업체를일궈냈다.

박덕흠대표가이번에금탑산업훈장을수상한 데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점이 결정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원화건설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지속적인 선진 기술 개발, 그리고신공법연구를통해수십건의 신기술과특허를취득하였다. 특히, 노후교량·지하철공사에신기술을적용하는등건설공사품질향상에주력하여국내보수보강기술의선진화를주도해왔다. 박덕흠대표는"R&D 투자와신기술 개발, 건설기술 특허획득등을위해 15년전부터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을소임으로 생각하고열심히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박덕흠대표는기술개발과함께건설업계의당면과제인전문건설기술인력양성을 중시한다. 실제로그는서울산업대학교와산학 협력 협정을 맺어 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정규 학사 과정을 개설·운용토록함으로써 전문 건설 기술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산업대의 겸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직접참여하였다." 건설업의요체는기술입니다. 그런데어떤사람이그기술을쓰고, 개발하느냐에따라 건설 생산품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건설 기술자가가장중요한셈이지요."

활달한성격의박덕흠대표는사회활동에도 열심이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한국어울림문화복지협회를설립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정책 이사 등을 맡아 불우노인에대한지속적인지원활동을하고있다. 나아가청소년장학사업·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 계층에대한활발한봉사활동을펼쳐왔다." 어린시절부모님을일찍여의고가난하게자라면서사회환원에관심이많아져그저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게아니라, 10원하나라도누군가를 위해쓰겠다는생각이중요한것아닌가싶습니다."

한편, 박덕흠 대표는 전문건설업체의 구심점역할을하고있는전문건설협회의수장으로서 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건설원자재가격이올라도공사계약후원가상승분을보전해주는원도급사가 거의없고, 일선현장근로자들은임금인상과표준계약서작성을요구하고있어전문건설업체들이 샌드위치 신세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사중단과건설업등록반납까지불사하겠다는회원사들이늘고있다"며" 지금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일반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가공동수급체를구성해공사를수주하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의 도입이 더욱활성화되어야한다"고말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